

전북 완주군 삼례읍 구 만경강 철교에 서 있는
'비비정예술열차'에서 바라본 풍경. 100여 년 역사를 품은
낡은 철교와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 갈대와 물억새가
흐드러진 강변의 모습이 쓸쓸하면서도 따스해 보인다.

옛 흔적에 생명 깃든 만경강

따스한 물길 따라 시간을 건너다

다시 또 다리를 건널 시간이다. 이 다리를 지나면 새로운 길이 열릴까.

다리를 건너 강을 따라 걷고 또 걷는다.

전북 완주에서 익산·김제·군산을 가로지르는 만경강은 그렇게 강변을 따라 걸으며

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시간을 헤아리기 좋은 곳이다.

추운 겨울에도 은빛 온기를 품은 억새와 갈대가 우거지고,

오래된 다리 위로 따사로운 노을이 내려앉는 강.

그 강에서 올해의 마지막 시간을 건넌다. 글 김봉아 기자 사진 임승수(사진가)



1 완주군 삼례읍 하리 근처에서 만경강이 소양천과 만나면서 형성된 신천습지. 은빛으로 반짝이는 갈대와 물억새 사이로 걷기 좋은 길이 나 있다.
2 회포대교에서 내려다본 신천습지의 전경. 강물이 천천히 흐르면서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섬, 하중도가 점점이 떠 있는 모습이 독특하다.



은빛 물결 반짝이는 만경강의 허파, 신천습지

한 해가 저물어갈 때면 서쪽으로 떠나고 싶어진다. 서편 하늘이 잘 보이는 강가나 바닷가에서 지는 해에 낡은 것들을 실어 보내고 싶다. 하지만 올해의 마지막 여행지로 만경강을 택한 것은 그 때문만은 아니다. 시간을 이어줄 것 같은 오래된 다리가 있고, 생명의 따스한 기운을 품은 웅숭깊은 습지가 있어서다.

만경(萬頃)은 ‘만 개의 이랑’이라는 뜻이다. 이름부터 넓은 들판을 품은 만경강은 ‘호남평야의 젓줄’로 불린다. 전라북도 북서부를 가로지르는 80km의 물길은 완주군 동상면 밤샘에서 발원해 완주·익산·김제·군산을 거쳐 서해로 흘러들어 간다.

만경강은 강변을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 좋다. 자전거길과 둘레길이 잘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밤샘에서 완주군 삼례읍 해전마을까지 약 44km 구간에는 ‘완주 만경강길’이 나 있다.

만경강은 20여 개의 습지를 품고 있다. 강폭이 넓고 보가 많아 습지가 형성되기 좋은 환경을 지닌 덕분이다. 그중에서도 광활한 규모에 독특한 풍경을 지닌 신천습지를 찾았다. 신천습지는 삼례읍 하리 근처에서 만경강이 소양천과 만나며 폭이 넓어지면서 생긴 습지다. 습지 사이로 들어서니, 갈대와 물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며 옆구리를 툭툭 친다. 보송보송한 은빛 붓으로 간질이는 느낌이 좋다. 갈대와 억새는 신천습지뿐 아니라 만경강 전역에 우거져 예로부터 ‘노전백리(蘆田百里)’라는 말이 전한다.

길을 걷다 무슨 기척이 나는가 싶어 돌아보니 갈대밭 사이에서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른다. ‘만경강의 허파’라 불리는 신천습지는 생태계의 보고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인 황새·노랑부리저어새·금개구리를 비롯해 수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회포대교에서 하리교까지 2.4km 정도 이어지는 신천습지를 한 눈에 보기 위해 회포대교에 올랐다. 다리에서 내려다보니 넓은 강 양쪽으로 두툼한 갈색 담요를 두른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강 가운데에도 찢어진 담요 조각 같은 섬들이 떠 있다. 강물이 천천히 흐르면서 자갈과 모래 같은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하중도(河中島)다. 신천습지만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하중도는 강의 수질정화와 생물다양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만경강에는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어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기 좋다. 2 생태계의 보고인 신천습지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한다. 3 갈대와 물억새가 흐드러진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이다.

아픈 역사의 흔적 품은 철교와 간이역

만경강은 시간 여행을 하기 좋은 곳이다. 강변 곳곳에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신천습지에서 삼례읍 쪽으로 가면 강 위에 가로놓인 오래된 다리가 보인다. 등록문화재(제579호)로 지정된 구 만경강 철교로 일제강점기인 1928년, 호남평야의 농산물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세워졌다. 476m 길이의 이 철교는 건립 당시에만 해도 한강철교 다음으로 긴 교량이었다. 그러나 2011년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만경강교가 새로 놓이면서 그 역할을 다했고, 폐철교 위에는 새마을호 폐객차 4량을 리



1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인 익산 춘포역. 만경강 주변에서는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다. 2 일제강점기 때 수확한 쌀을 도정하기 위해 일본인 대지주가 지은 춘포도정공장. 지금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모델링한 ‘비비정예술열차’가 세워졌다. 레스토랑·카페·아트숍 등으로 꾸며진 비비정예술열차는 강을 바라보며 기차의 낭만을 느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열차 끝에 있는 카페의 테라스에 서면 강물 위로 길게 이어진 낡은 철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철교와 열차와 강이 어우러진 노을 풍경도 한 폭의 그림이다. 철교보다 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을 끈 곳이 있으니, 바로 철교 근처 언덕에 있는 ‘비비정(飛飛亭)’이다. 옛 선비들은 비비정에 올라 풍류를 즐겼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비비낙안(飛飛落雁)’이라 했다. 강변의 백사장에 내려앉은 기러기 떼의 모습을 표현한 말로, 만경강 8경 중 5경으로 꼽힌다.

비비정은 1573년 무인 최영길이 처음 지었다가 중건을 거쳐 1998년 복원됐다. 정자에 오르면 만경강 철교와 새로 생긴 만경강교가 한눈에 보인다. 비비정 근처에는 비비정마을 주민들이 운영해 손맛 좋기로 이름난 ‘비비정농가레스토랑’과 ‘비비낙안’이라는 카페도 있어 들리볼 만하다.

삼례를 지나면 만경강은 익산 땅으로 들어선다. 익산시 춘포면. 이곳에도 춘포역과 춘포도정공장, 구 일본인 농장 가옥(호소카와 농장 가옥) 등 아픈 역사의 흔적들이 있다. 익산 최대 곡창 지역인 춘포에 일본인들이 들어와 ‘대장촌’이라는 큰 마을을 형성하고, 수확한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대규모 도정공장과 역을 개설한 것이다. ‘대장역’이라는 이름으로 1914년 지어진 춘포역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로, 건축적·역사적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제210호)로 지정됐다.

2011년 폐역이 된 춘포역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ㅅ’자 모양의 박공지붕과 작은 대합실의 오래된 열차시간표는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봄 나무를 뜻하는 ‘춘포(春浦)’라는 이름이 적힌 녹색 간판은 또 얼마나 정겨운지.

1914년에 일본인 대지주 호소카와 모리타츠가 지은 춘포도정공장도 볼만하다. 낡고 거대한 건물을 보면 시간이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드는데, 내부에는 예술 작품이 전시돼 있어 이색적이다. 1940년대에 호소카와 농장 안에 지어진 구 일본인 농장 가옥(등록문화재 제211호)도 눈길을 끈다.



1 원주군 삼례읍 후정리 언덕에 있는 비비정. 만경강을 내려다보기 좋은 곳으로, 과거 선비들이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2·3 구 만경강 철교에 세워진 비비정예술열차 내부. 커다란 창으로 강을 바라보며 기차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
4 새마을호 폐객차를 리모델링한 비비정예술열차. 오래된 철교와 어우러져 찾는 사람들이 많다.





'목천포다리'라 불리는 구 만경교의 일부가 강변에 남아 있다. 일제가 농산물을 수탈하기 위해 세운 다리로 2015년 철거됐다.

세월을 견딘 다리, 바다를 품은 절

시간 여행은 만경강 하류에서도 계속된다. 100년의 시간을 건너 온 다리들이 강을 따라 이어지기 때문이다. 익산시 목천동과 김제시 백구면을 잇는 구 만경교는 1928년 일제가 곡물을 수탈하기 위해 세운 다리다. 만경강의 큰 포구였던 목천포를 잇는다고 해서 '목천포다리'라고도 불린다.

이 다리는 윤홍길의 소설 <기억 속의 들꽃>의 배경으로 유명하며, 한국전쟁 때 해병대의 작전지가 되기도 했다. 그러다 1990년 새로 개통된 만경교에 그 역할을 넘겨준 뒤 2015년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됐다. 현재는 강변에 다리의 일부만 남아 있으며, 옛 사진이 담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끊어진 다리 끝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경교를 기억합니다.'

구 만경교 옆에 있는 만경강문화관에서 만경강의 역사와 문화

를 살펴본 뒤, 또 다른 오래된 다리를 찾아 나섰다. 만경강 하류에 있는 구 만경대교로, 김제시 청하면과 군산시 대야면을 잇는 530m 길이의 다리다. 1933년 김제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건설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멘트 다리로 알려져 있다. 신창진(新滄津)이라는 포구의 지명을 따 '새창이다리'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1989년 다리의 노후화로 인해 바로 옆에 만경대교가 놓이면서 지금은 차량 통행이 금지된 상태다. 한때 다리 위에는 망둥이와 송어를 잡으려는 강태공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다리 아래에는 실뱀장어 배들이 다니며 주민들의 주머니를 채웠다고 한다.

차도 없고 인적도 드문 다리에 올랐다. 난간엔 검푸른 이끼가 끼어 있고, 바닥엔 누런 잡풀이 돋아 있다. 세월의 풍파를 헤쳐온 다리는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는 듯하지만 군데군데 허물어져 위태로워 보인다. 교각 주변에는 제멋대로 자란 풀들이 무성해 더욱 쓸쓸한 분위기가 난다.

다리를 걷다 보니 어느새 아래로 내려온 태양이 다리 난간에 걸려 있다. 황량한 다리가 잠시 노란빛으로 따스하게 물드는 시간이다. 만경강에서는 어디서나 그럴듯한 노을을 볼 수 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몰을 위해 점찍어둔 곳은 따로 있다. 만경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곳에 위치한 절, 망해사(望海寺)다.

김제시 진봉면 진봉산 기슭의 망해사에 도착하자, 담장 너머로 펼쳐진 탁 트인 바다에 탄성이 나온다. 이름처럼 정말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절이라니. 671년에 부설거사가 처음 지었다는 절에는 낙서전과 칠성각, 400년 된 팽나무가 있다. 망해사의 노을은 종각과 탑, 팽나무의 실루엣이 바다와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다. 멀리 고군산군도가 한눈에 보이는 노을 풍경을 담으려면 절 위쪽의 전망대에 오르면 된다.

서쪽으로 흘러 흘러 드디어 바다에 다다른 강. 붉은빛으로 물들어가는 바다는 강의 시간을 품고 있다. 수많은 생명과 이야기들이 바다로 스며들어 드넓은 물길로 나아간다. 그렇게 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



1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멘트 다리로 알려진 구 만경대교 '새창이다리'라고도 부르는 이 다리는 현재 통행이 금지된 상태다. 잡풀이 무성한 교각의 모습이 쓸쓸해 보인다. 2 만경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곳에 위치한 망해사는 아름다운 노을로 유명하다. 종각과 탑의 실루엣 위로 해가 떨어지는 풍경이 장관이다.

2

